

## 1008(토) 마태복음 18-20장 어린아이 같은가?

새 시대,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은 무엇일까요?

예수님은 <어린 아이>를 꼽으십니다(18:3, 19:14).

부자청년은 든든한 자산과 훈련을 기반으로(19:20,22),  
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친밀함을 기반으로(19:27)  
스스로를 새 시대의 미래 권력이라 여겼습니다(19:16, 20:21).  
새 일,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것입니다(20:22).

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하면  
외적 행위뿐 아니라 <속마음>에서부터 새로워집니다.  
용서/이혼 등의 문제/해결방안보다 중한 것은(18:15-19:12)  
질문을 하는 사람의 상황/의도/속마음입니다.

예수님은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 
하나님께 반항하며 소견대로 행하려는 완악함,  
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.  
근원이 바뀌지 않으니 문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.

주님은 문제의 이면을 살피게 하시며(18:21,33, 19:7-8),  
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.  
더 나아가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종을 맡아  
가장 온전하고 선한 상태로 빚어가십니다(complete 19:21,26).  
(18:18-20,35, 19:5-6,12/ 20:14-16,22-23,32-33),

어린아이는 연약하고 취약하며 미숙하지만,  
순진함/개방성/유연성/진솔함/진실함을 지녔습니다.  
어린아이는 무엇보다 <아버지>를 신뢰하며 사랑합니다.  
완벽한 분별력/수행능력/현실성/효용성/효율성은  
<어린 아이>에게 기대할 바가 아닙니다.  
(18:6,19:13, 20:7,31/18:4,8-9,19,33, 19:21,26,29, 20:26-27)

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?

- ❶ 말씀을 분석/분별하며 현실성/효용성/효율성을 먼저 떠올립니까?
- ❷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에 내 모든 영역을 완전히 개방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마태복음 18-20장